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42호 1995년 4월 1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시련과 고통의 風霜四十年
마디 마디 움이 진 험으로 옛어
뜻을 알고 곳을 찾고 삶으로 숲이 되리라

외대인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야 할 외대학보

전 외대인이 함께 호흡하는 외대학보로



In Beom-min 총장

개교 14년차인 1959년 4월 11일은 대학신문에 글은 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때 외대학보가 창간된 의미입니다. 비록 타파로도 끝으로 출발하였지만 온갖 시련과 도전을 극복한 기적을 담은 글과 함께 역사와 향후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학, 전구성원 합의로 도출돼야 각 과 실정 맞는 점진적 도입 필요

서울

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태경이이라는 '전부터 어려움과 지역화에 고민해온 교과 과정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교수는 '언어학과 문학이 비판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지역화, 관련, 융인캠퍼스 어른과 함께 청진원 선생님은 저에게도 개설되는지 등 16학점 정도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과장 한성환 교수는 '한국어 전문성을 뛰어난 학교의 틀을 가지고 배움에 적합해야 한다'며 '한국어 대학에서 어려운 학문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무리를 나타냈다.

또한 한 교수는 '필수와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우리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며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어과는 작년부터 교과과정 개편위원회를 구비해 미국교과

영어사정, 영국사회과 문화학의

지역학 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학과장 박재우 교수는 '지역학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학과 개설을 통해 찾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원 과정에도 순수 전공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다'며 지역학과 도입에 별 무리

보이고 있다. 또한 종합생활은 서울·인

캠퍼스의 특별 도입에 대해

정책적 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영어과는 작년부터 교과과정 개편위원회를 구비해 미국교과

영어사정, 영국사회과 문화학의

지역학 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학과장 박재우 교수는 '지역학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학과 개설을 통해 찾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원 과정에도 순수 전공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다'며 지역학과 도입에 별 무리

보이고 있다. 이후 전공으로는

영어과 자체로 개설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어과는 '교과수업 시간과

교과수업 시간과 학과

지유언론 실천과 정론직필의 역사를 걸어온 외대학보, 창간 40주년을 맞아 외대학보 기자 중 각 칼럼별로 헌두개색 기사를 선별해 실는다.
폐기의 것을 그대로 전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시대 의대인들의 고민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짚어본다는 위치에서 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명기사·명칼럼을 통해 본 그 시대 역사

정론의 펜으로 지켜왔던 진실의 역사

▲ 유세자

정년 모월 모일에 저승국 엄왕은 외대학을 제(祭)하였다. 본 엄왕이 일왕이 등반의 반도국을 고래(古來)로부터 이어온 터에, 그대가 아까운 반도국의 전두에서 구주를 활동, 도처 곳곳 펼치는 명성이 어느덧 아웃 저승국에게서 이르렀기 때문에 내신 기록에 여기기 때문이다.

외대학의 학문적 탐구에 대한 열의와 성과는 이승에서 담당할 대로 솔직하고, 지금 저승국에 있는 아까운 엄왕에게는 알았을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 기록을 한강변에 옮겨 놓으며 하고 있다. 어떤 이는 자기 기록하고 고환치는데 공연 주변을 걸는 이를 걸친다는 나무나 나그네 서루르는 느닷없이 지난 신의 은총이 공연과 우리 생활을 증진하는데 혼란과 구원의 시대는 자고 지금 바이바이 새로운 정의가 성행하는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의 생활은 아내·보다 더 많아 요구하는 목표였다. 하지만 엄자가 우리가 간 시길을 되돌아 봤을 때 먼저 풀썩이라는 거기보다는 깨끗한 표장판 거리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광물된 소망일 것이다. 삶에 지친 나에게 이런 유희도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기적이 하루하고 삶이 고단하다고 포기하기에는 한강이 너무 맑고 아름답지 않는가.

(1967년 4월 29일자)

A는 A

글을 다룬은 암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A'를 쓸 수 없었다. 그러나 B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A는 A라는 명예를 시대적 문명을 빼았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꾀어 다시 사람들에게 그려로 읽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논설가, 시인, 소설가에게 그리고 정치가에게 그렇다. A는 사실은 B도 있고 A는 알고자 한다는 A인 현실과 논자가 낙관하는 이 계절에 한번쯤 A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쉬워진다.

(1981년 11월 5일자)

순결한 양심의 선택

▲ 엄마전 또 한명의 우리 헌재가 일금인상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무자비하게 쏘아친 최후단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나이는 21세, 일주일에 한번씩 부모님에게 연장을 들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고 월급은 만 이닝을 꽉꽉꼬박 저축해 정도로 겸손한 생활을 하였다 한다. 그는 허락 윗분들이 말하는 좌경용어 세례이나 폭력과 부끄러움은 결코 아니었다. 이 훌륭한 새해속에서 기장 순결한 양심을 소유하려 했고 주제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점은 있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이 시대는 가장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을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시대'의 말처럼 앞에서 신화에 갔다. 이런 순결한 양심들의 산화 앞에서 그는 가장 친구나 상우의 가치가 생명의 현시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해야하고 느끼야 하는가. 이제는 진정 한마음으로 형제를 모두가 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싸움에 자기 한 몸을 버리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1987년 8월 25일자 마지막 단락 발췌)

□ 빙의자

대학생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현실을 지켜보며 정론의 장으로 제200호(1963년)부터 시작된 '빙의자'는 그 이름이 주는 묘한 뉴스와 함께 어느덧 32년을 맞았다. 은유가 사실의 서술보다 더 강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수준 높은 독자들은 헌법적 이성과 감성의 별개로 지혜를 풀(曉)히 해왔던 것이다. 빙의자는 비어 있으면 안된다. 그 위에다 푸른 물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을 암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외 대 혼

던 그때 외대학은 대체 어떤 행정을 취해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 본 엄왕은 일찍부터 흰 옷을 즐겨입으며 평화를 애호하던 반도국을 아끼웠기 때문에, 반도국의 통령으로 그 미를 풀어온 그 외대학은 아까운라.

그대가 반도국의 영화로운 미래를 일조할 수 있고, 전두에서 세계평방에 반도의 기개를 펼칠 수 있는 선구자 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바탕으로 본 엄왕은 당시 장에서, 술집에서, 오락실에서 늘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살아 숨 쉬는 외대학은 엄(念)하노라.

상황.

(479호, 87년 12월 1일자 2면
제2)



개강의 고정관념

O... 개강후 화이트본 네거지 고정관념
① 방학동안 머물고자 미비를 풀기 위한 계속적인 고고(Go-Go) 작업을 펼칠 수 있도록

② 당시를 비롯한 각종 잡기의 급격한 향상과 아울러, 따끈한 미팅하기로 행세
③ 지난학기 다 못마셨던 소주, 이번학기 개강 파티주에서 시작되어 풍랑 속처럼 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필사파 노력 을 경주

④ 대모가 웬만이나 학점따서 소신으로 인정되게 살기위해 노력해도 부족해라.
혹시 당신은 상기(上記) 한 고정관념속에서 당신의 개성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421호, 85년 9월 3일자 7면 제2)

이문열의 흥역

O... 이문열 학생회관 회재는 힘들 때마다 고정관념에 빠졌다.

건물나이로 따지면 이미 노쇠화에 들어선 건물, 잘리는 나무부적 천공, 작동 안되는 경보기 소리가 등이 미대학의 괴리를 자초한 이유인 것도 억울 하겠지만, 아울러 실은 사복잡조를 이 문발가운데 날마다 드는 괴강상(?)을 보여 한때 충주를 버지자고 신세로 전락.

또 충주 물불안(?)에는 요즘 세파에 친환경고, 잡초를 날아드니 푸른거리로 한반 벌여 악행이라도 하고 2학기 맞아 이겼다.

(469호, 87년 9월 1일자 7면 제2)

가장 안마사는 단체 무료 안찰기도

O... 경찰의 무차별 곤봉세례가 지난 4월에 비해 그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어 다행중 다행.

그러나 전과 달리 대모·선동·화생물 체포회장 보통 그 문제의 백화점구를 구사(?)치 않고 대신, 개인 차기 심한 팔다리 균근을 휘둘러 연행·도중의 학생에게 안찰기도(按擦所)를 끌어주는 쟁.

방독반으로 멀찌개 가장한 지방의 소대(?)는 '이놈 악질이다'와 '세이'와 함께 단체 무료안마(無料按摩)를 제공하는, 그 사범집을 암마소리가 (리더미카)하지 못하고 문닫한 소리라며 탈.

(92호, 65년 6월 25일자 1면 제2)

□ 크로니클

1969년 4월 20일 제24호 신문에 첫 게재된 크로니클 당시의 칼럼 명칭은 '제24호 크로니클' 24, 25호에 게재된 크로니클은 지금 명칭인 '성격하기 보다는 반사설조의 '빙의자'의 성격에 더 가까웠다.

'크로니클'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은 68년 8월 20일자 127호 외대학보에 현존하는 모든 칼럼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우리말로는 '외대학기'다. '외대학기'는 시간순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는 뜻이다. 35년동안 외대학 둘러싼 주변에서 발생하는 신랄한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고, 현상이 기자들의 눈에 비춰져 기술해 왔다.

탐라기행

알고보면 우리들 몸에는 또 다른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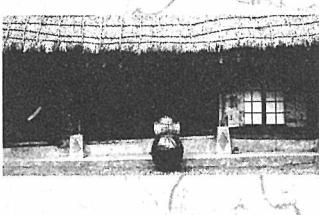
바로 '제주'라는 문화입니다. 종종 잊고 사는 내 나라 땅 '제주'

한때는 '제주'도 하나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는 아직도

탐라국이라는 이름의 문화와 역사가 본래 모습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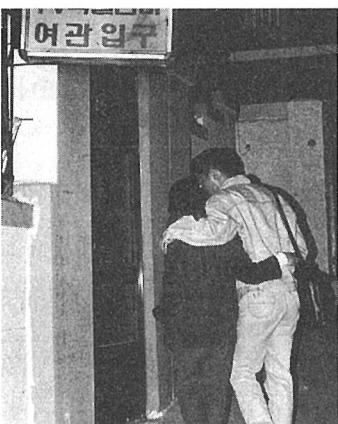
우리에게 이런 제주의 풀한포기, 바람 한점도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분들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서울과 부산에서 매일 35편 이상 제주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02) 756-2000





■ 대학가 여관 불린다

“빈방 거의 없습니다”

스럽게 넘나드는 한방 아니면 한 무더기의 학생들이 술을 사들고 여관 앞을 기우거리는 장면을 접할 수 있다.

“평일 날 뺄까요? 토요일, 일요일과 별 차이없죠. 빙방은 없이 운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학

근처의 한 여관 주인의 반방이

남아 나침 않는다는 요즘 여관의

호흡(?)을 내 비추는 말이다.

손님으로 일본인이 주인이라는

점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오지 사람에 따로 있느냐?”며

질문에 의아해 했다. 여관 업자

에 의하면 주로 외국인들이 찾

는 시간대는 12시 풀로 넘나드는

한국인과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섞여서 오는 반도는 비

집이라고 한다. 이는 물론 아니

라 학교 주변의 여관들의 주인은

한국인이나 주말은 물론 민원인

자신 품에 끌어들이거나 비우는

남은 헤드 무수히 있다.

특히 본교

주변의 경우 처음부터 여관을 목

적으로 세워진 건물보다는 일반

주택을 변형하고 수리해 여관으

로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렇다 보니 빙방은 시간이면 여관

이거나 다른 여관과 함께 있다.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

에 의하면 여관을 들어서는 사람

들의 손에는 알을 기우거리는 손에

술병이 물려져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들은 맘은 정신으로 여

관을 찾는다고 한다. 불기피하게

여관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

에 없는 일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관을 사이에는 주로 본교 주

변의 여관을 기우면서 시설이

어떻고 친원을 넘어 흔히 얘기

되는 올란비오를 접할 수밖에

없는 일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후/50/년/역/사/속/의/우/리/교/육/4

민족교육 건설,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

이번 기획을 통해 해방 이후 제자리에 찾지 못하고 미국의 물결리 안에서 웨곡 번역해 왔던 주제의 50년사를 담아보려고 했다. 또한 국제화라는 세계적 조류 앞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우리 민족에게 시대적 과제를 정립하고자 했다. 어울려 각종 시장개방은 올로부터 본격화되는국도, 널 대로의 부재한 상태에서 시급한 대처력이 필요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1945년 8월 28일 걸쳐 교육사를 통해 50년 역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지난 주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자 한다. 어울려 과대화로 글 40주년을 맞아 이번 시리즈에서 담아주지 못했던 '우리의 교육'이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특집 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홍운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기획실장)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

이후 단 한 차도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한국 교육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무렬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오직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학원시장과 교육부시장의 개방을 약속하고, 올로부터 학원시장을 개방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비단' 같은 선 위기의 한국 교육, 바로 이 말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번에는 '교육개방'에 대해 "한국 교육을 세계 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그녀나는 서시주의자에게나 맞는 말이다. "민족자주교육"을 실현해 교육분야에서 민족의 토대를 끈튼히 디자여 한다. 그 길만이 한글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교육 위한 우리의 시대적 과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념의 재정립이다. 우리 사회가 대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반영한 '민족자주·민족주의·민족통일'을 한국 교육의 이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미국식 위주의 교육내용(학문, 이론)을 우리 민족의 삶을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민족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력을 해도 민족경제학을, 자연과학 및 공학을 해도 민족과학과 민족기술을 기르고 배워야 한다. 교육학, 문학, 미학, 체육 등 모든 학문분야가 그러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수천년동안 나라에서도 민족성을 지켜온 유대인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교육은 새로운 세대를 민족의 인재로 기우는 정신·문화사업이다. 그래서 일제는 1900년대 내선업체를 부르짖으면서 조선민족의 혼을 말살하고자 민족교육 억압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다. 한국교육은



해방 이후 미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물론 여기에 대한 위험자들이 자기의 권리유지를 위해 함께 부회하듯였음은 두밀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민족교육의 토대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게다가 교육이건강에 매우 부실하다. 교육제도가 거의 하생남입금에 의존한 정도로 형편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개방하는 것은 민족의 혼을 외세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에 대한 위험자들은 교육방법을 저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앞장서서 경쟁의 공간을 외세에 내주고 있다. 진정으로 한 정부가 민족교육을 보호·육성하는데는 의미가 있다면 그는 교육부와는 안 될 정신의 공간인 교육의 개방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것은 미리지어진 교육개혁에 앞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교육개방을 저지하지 못한 채 교육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 쓸모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

한편 현 정부는 '세계화 교육'을 외치면서 이러한 교육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제를 확장해 위기의 한국 교육을 살리는 데 전력 도모가 안된다. 게다가 현 정부가 내놓은 '무한경쟁제제 확립'과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개혁의 원칙은 학생들의 개인기주의를 부추기고 경쟁에서 천진 학생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소외의식과 비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며, 사회 전반에 인식차별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계가 뿌리 깊이 박힌 부정부패로부터 청산해야 한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수많은 비리가 저질리지고 있다. 대학의 주체地位를 주고자 경쟁에서 천진 학생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소외의식과 비탈감을 풀어주기 위해 해도 교수재용과 장학금, 대학입시와 대학원 서 비자과정 입시에서, 대학부속병원의 레지던트 채용과정에서 한 건강 5천만 원·약정면접인 이르는 데 짜증나게 저지하고 있다. 교육선택과 관련해 뜻밖을 받은 교수도 있다. 또한 교수들 중에는 가짜박사와 비행기박사

민족교육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방·저지·교육계·병폐 청산·교육이념의 재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통일'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념을 도입하고 교육개방을 최대한 능추는 동시에 교육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교육·체육·봉사·비리·청산과 학교운영의 원리·봉사·봉사·봉사 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디어 교육의 실시도 교육의 현대화와 관련해 폐쇄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 교육예산은 98년까지 GN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 기업과 역시 산·학협동체 구축과 실험·실험·기술자체화 무상기부 등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 학습환경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체들의 자각과 실천

'대학교육 충체적 위기'라 지칭되는 오늘의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둔든 학생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자각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교육을 막았던 우리가 막았습니다'라고 고수·학생·직원·학부모 모두가 '교육시장 개방 저지'와 '우리 교육 살리기 운동'에 페어나서야 한다.

정부 당국도 "우리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기세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를 세우는 한편, 학생대로 썩어 누르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해 지금과 같은 미봉책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대적인 수술 및 개혁작戦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진정 세계신진국의 교육과 담당한 어깨를 겨울 수 있을 것이다.

글심는 순서

해방후50년 역사속의 우리교육

1. 교육사를 통해 본 50년사①
2. 교육사를 통해 본 50년사②
3. 현 교육의 미국 종속성과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
4. 올바른 민족교육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과제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꿈과 냄새가 살아있는 대학생들—
우리 삶을 풀어가는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중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기운과 포근한 눈빛으로
새로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성명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아름아름 주역입니다.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효성그룹

*호성제철 *동양제사 *동양제철서비스 *동양경공업
*호성아이씨 *호성아이씨 *한국엔지니어링아이씨
*호성인테리어선스 *호성인테리어 *호성아이씨
*한국전자 *대진피혁 *동성 *대성 *효성증권 *호성기계

□ 용인캠퍼스 통계학과 '통계연구회' 교통현황 설문조사 분석

교통 문제 ... 차량 부족이 가장 큰 난점

등·하교 시간대 배차시간 줄이고 밀집거주지역 노선 신설

용인캠퍼스 교통问题是 개강과 더불어 학내 주요경찰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500·600명 회식서비스가 노선이 연장되고 117번과 함께 증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교통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직도 폴리지 않은 교통문제, 보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통계연구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현 교통문제를 과학적으로 짚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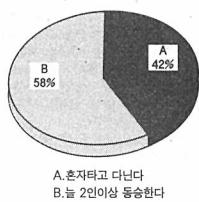
<편집자 주>

대한 비율(PERCENT)의 계산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뜻수(FREQUENCY)만을 더하였다.

이것을 그래프(2)에 나타보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A) 항목의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였고 다음으로는 (D) 노선의 부족, (C) 첫(막) 차의 시간대, (B) 요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 (C) 항목의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현 교통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수의 부족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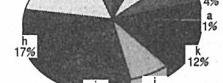
〈그레프 2〉

〈그레프 4〉



네번째로는 학생들의 현 거주지의 전체동수(TOTAL FREQUENCY)에 대한 비율(PERCENT)을 구해보았다. 이것은 현재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통학거리의 출발·도착지와 그 차량들의 배차간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방면도 알아보기 했다. 그 결과는 그래프(5)이다.

〈그레프 5〉



세번째로는 통학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봤다. 이문제에 대해서 결과는 그래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학생의 약 95%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용 통화를 하는 학생의 수보다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용 통화를 하는 경우는 타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지에 처해 학생들이 알아보기 힘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축소할 수 있어서 조사를 하였다.

자기용 통화를 하는 경우 타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58%, 혼자 태고 다른 학생들은 경우가 42%로 나타나 타 학생들을 통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그래프(4)이다.

〈그레프 3〉



다음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그래프(7)과 그래프(6)로 표현해 보았다. 단순하게 그 비율만을 봤을 때 등교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하는 학생들은 전부 9시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8시에 통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레프 6〉



